

# ‘민원인 불편·비효율’...광주 지자체 청사 과밀에 골머리

### 각 부서 6개 건물에 흩어지고...민간 건물 더부살이도 광주시, 사업소·직속기관 밀어내며 공간 확보에 힘써 민원인 불편·업무 비효율·임대료까지...행정비용 늘어

광주 자치단체들이 청사 내 업무공간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행정수요 다변화로 조직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호화 청사’ 논란 이후 여론의 눈치 등으로 근본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북구는 1985년 이후 용봉동 청사 시대 37년 내내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꾸준한 조직 확대로 만성적인 사무공간 부족을 겪고 있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본관 3·4층에는 구의회가 입주해 있다. 본관과 인접한 좌우 부지에 별관 건물 2개 등을 지어 연결했지만 금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청사 확장이 여의치 않자 북구는 조직 확대 추세에 맞춰 본청 외 건물을 지속적으로 매입해왔다. 그 결과 청사는 본청, 별관 2개동, 복지

누리동, 보건소, 효죽공영주차장(교통과 입주), 민간 소유 건물(시설지원과) 등 6곳에 분산 배치됐다. 민원인들은 북구청 교차로 곳곳에 흩어진 청사를 찾아 횡단보도 2~3개를 건너야 하고 햇볕음절도 일수다. 분산 배치로 부서 간 협업 저하, 보고·결재 시간 지연 등의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민간 건물 임대비도 매달 242만 원에 이른다. 오는 2023년 1월 이후엔 재계약 또는 이전을 고민해야 한다.

이 밖에도 내진 설계 기준 강화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 등까지 감안해 북구는 청사 건립 문제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현재 구 청사 신축 또는 증·개축 여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 7월께 결과를 통보 받는다. 최근에는 수십억 규모의 청사 건립 기금도 차례로 적립하고 있다.

서구 역시 창고·체력단련실까지 사무실로 개조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2011년 완공된 서구 본청은 비교적 최신 청사지만, 당시 예산 부족·수도권 지자체 호화청사 논란 등 이유로 비좁게 지어졌다. 정부의 청사 면적 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1만4061㎡)보다 2000여㎡가량 밀도는 수준이다.

더욱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물 구조상 확장·증축이 쉽지 않다. 반면 완공 당시 본청 정원 675명은 올해 2월 기준 1061명까지 늘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군 소음보상팀 등 개별 부서는 청사 주변 개인 소유 건물 2곳으로 밀려났다.

서구는 2018년부터 청사 확충을 검토한 끝에 본청 건너편 1394.4㎡ 부지에 예산 156억 원을 들여 공공복합청사(제2청사)를 짓는다. 구청 사무공간, 자치·문화공간, 작은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의회 반대에 부딪혀 당초 일정보다 10개월 가량 늦어졌지만 현재 청사 기본 설계는 공모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4년 7월 완공 예정이다. 서구의회 청사 역시 직제 변화에 맞춰 전용청사 로비 일부를 사무실로 바꿀 계획이다.

광산구는 9개 부서 157명이 인근 민간 건물 1곳의 4개 층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1년에만 임차비용으로 2억 2136만 원이 투입된다.

본청과 50여 m 떨어진 2청사 1층에는 송정 2동 행정복지센터가, 2~4층에는 광산구의회가 자리하고 있다. 주차장을 비롯한 건물 면적 자체는 비좁은 반면 민원인 방문이 잦다.

이에 광산구는 올해 안으로 송정2동 행정센터를 신축 이전, 의회가 2청사를 전용한다. 보건소 이전을 통한 본청 사무실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

2004년 3월 완공된 광주시 본청도 과밀문제가 심각, 업무공간 확보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치평동 현 청사에서의 지난 19년동안 인력·조직은 꾸준히 늘었다. 지난달 기준 본청 정원은 1556명에 달한다. 행정동 16~17층에 입주한 시 직속기관 광주시소방안전본부 정원 110여 명까지 감안하면 여유공간이 없는 실정이다.

지방 분권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다변화에 맞춰 신규 부서가 늘었고 시 자치경찰위원회 등도 입주했다.

과밀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지난 2020년 12

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산하 사업소를 중심으로 청사 재배치를 진행했다.

유덕동 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를 신축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쓰던 화정동 청사 건물은 본청 12~13층에 있던 종합건설본부(110여명 규모)가 이전했다.

또 지하 유휴 공간 등도 활용하고 있지만 시소방본부 이전이 끝나는 2028년까지는 사무공간을 넉넉히 확보하기 어렵다.

광주 자치단체 관계자는 “다른 수건 짜듯 공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조직·인력 확대 추세에 비해 정부의 청사 면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도 있다”며 “청사가 여기저기 산재하면 부서 간 협업, 민원인 편의 문제 등에서 보이지 않는 행정 비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 관계자는 “경기지역 호화청사 논란 등으로 주민 여론이 굽지 않은 탓에 효율적 행정을 위해선 충분한 업무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근본적 대책 없이 민간 임대 청사를 늘리면 결국엔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형세로 월세를 지불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큰 손해다”고 지적했다.

박남진기자



## 전남도, 통합방위태세 전국 최우수기관 영예 대통령표창...예비군 육성 공로로 2작전사령부 감사패도 받아

전남도가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용과 전·평시 통합방위시스템 구축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통합방위태세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는 최근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55차 국무총리 주재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통합방위태세 확립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표창장 전수식은 24일 도청 VIP실에서 이뤄졌다. 광주·전남 향토방위를 책임지는 육군제31보병사단장(소장 최순건)이 전남도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예비군 육성지원 및 통합방위태세에 큰 힘을 보탠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를 위해 육군2작전사령관(대장 김정수)이 마련한 감사패도 전달했다.

이어 전남도는 최순건 31사단장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준데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수여했다. 31사단은 지역방위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전남을 만드는 데 크게 공헌했으며, 코로나19 방역 활동과 재난·재해 복구에도 적극 참여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 반복되는 광주동물보호소 위탁업체 선정문제...직영 필요

### 광주시, 가까스로 3개월 한시 운영단체 선정 “예산 부족·자원봉사 한계 위탁운영 꺼려해”

광주동물보호소 위탁 운영업체 공모과정에서 신청자가 없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광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광주시와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동물보호소를 위탁 운영했던 A단체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운영을 하기로 재계약 했지만 갑자기 철회했다.

광주시는 6월 말까지 3개월 운영을 하는 조건으로 B동물보호단체와 운영 계약을 맺었지만 한시적이어서 새로운 업체를 또 선정 해야 하는 실정이다.

광주동물보호소 위탁 운영단체 수차례 유찰은 공모 시기마다 반복돼 대안 마련이 필요하

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에도 기존 위탁운영 업체가 계약 종료 뒤 재계약을 하지 않아 광주시가 공모에 나섰으며 신청자를 전국단위로 확대한 4차 공모 끝에 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문제는 계약이 종료되는 2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위탁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지역에서 발행한 유기동물 구조가 제때되지 않아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인력 규모, 예산확보,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 등 많은 문제가 있어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시적으로 한 동물보호단체가 맡기로 했지만 3개월 뒤에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 단체 등이 보호소 운영을 꺼려 하는 이유는 광주시의 지원이 부족해 후원을 받지만 여의치 않고 자원봉사도 한계가 있다”며 “동물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광주시가 직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 ‘태양·바람이 준 선물’ 전남 천일염 4월부터 생산

### 전남도, 10개 사업 130억원 지원

전남도는 태양과 바람이 준 최고의 선물이자 불리는 천일염의 전국 최대 생산지인 영광과 신안에서 4월부터 2022년산 첫 생산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천일염 주산지인 전남은 따뜻한 햇볕과 함께 바람이 불어주는 4월부터 10월까지 생산한다. 지난해 기준 연간 전국 생산량 28만 1000t의 94% 이상인 26만 4000t을 생산했다.

전남도는 전남 명품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10개 사업에 130억 원의 사업비를 지

원할 계획이다.

천일염 생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자동제염기, 전동대과기 등을 보급해 생산시설 자동화 기반을 조성하고 천일염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천일염 장기 저장시설을 지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산 명품 천일염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광주가정법원 2022 나단 3270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 박월임 (420807-2550712)  
최후주소 : 광주 서구 염화로83번길 7-20(화정동)

위 망 박월임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2년 3월 28일

공고인 : 김현철  
주소 : 광주 북구 문산로62번길 20, 102동 1202호(문흥동, 호반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22년 3월 25일  
공고기간 : 2022. 3. 28 ~ 2022. 5. 28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월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소득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액	비율
5분위 고소득층	240,833원	125,531원	1.7배
4분위	125,531원	79,147원	2.1배
3분위	79,147원	48,103원	2.7배
2분위	48,103원	26,697원	5.3배
1분위 저소득층	26,697원	-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국립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한국연세건강보험  
Korea First Health Insurance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하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기를 실신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합니다.

국민이여! 남서서 제1인생 살아가세요!